

지역잠재력에 기초한 지역유형 구분 및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regions based on the regional potential indicators

김태환 (국토연구원, thkim@krihs.re.kr)

최근 세계화·정보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정책 차원에서는 지역 중심의 발전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란 점차 개별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잘 실현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잠재력은 그 지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지역자본(regional capital)으로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루는 자원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에 바탕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지역발전 잠재력 분석의 기초연구로서 지역의 잠재력에 근거한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4개 잠재력 범주 - 경제적 (경제성과, 접근성 등), 혁신기반 (지식기반산업, 혁신활동 기관 및 인력 등), 사회문화 (문화 하부구조, 주민참여 등), 생활환경 (생활 하부구조 및 생활의 질 등)으로 분류하였다. 4개 범주 총 32개 잠재력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분석 지역은 지역발전의 기초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광역시는 단일지역으로 취급) 16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의 유형구분을 위해 먼저 각 지역별로 개별지표에 대한 측정값을 표준화하고 범주별 종합값을 산출하였다. 잠재력이 유사한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SPSS의 K-평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잠재력의 유사성에 의해 5개의 그룹 - 모든 잠재력 범주에서 우수한 지역, 대체로 양호하나 사회문화잠재력이 미약한 지역, 혁신과 경제에서 우수하고 사회문화 및 생활환경에서 미약한 지역, 대체로 미약하나 사회문화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모든 잠재력에서 저조하며 특히 혁신잠재력이 취약한 지역- 으로 분류되었다. 지역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형 1, 2, 3그룹은 주로 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4, 5그룹은 강원, 경북북부, 호남등 경부축 이외의 분포하여 지역의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유형간 지역발전 성과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잠재력은 지역의 발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발전 정책은 이러한 상대적인 잠재력의 특성에 기초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사한 잠재력 유형내에서도 발전성과에 따른 상대적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